

꼬인 나주 열병합발전소, 정부·지자체·사업자 함께 풀어야

초임기 들어간 광주 쓰레기 대란 대책 없나

SRF로 불리는 ‘폐기물 고형연료’와 이를 만드는 ‘SRF제조시설’, 그리고 SRF를 연료로 열을 만드는 ‘SRF발전소’ 등 3가지가 처음부터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것은 아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SRF 발전소와 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주민 반발로 SRF발전소는 가동되지 못하고 LNG발전소만 가동 중이다.

SRF발전소 가동 무기한 연기 사태는 오염물질 배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시작됐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한 데는 정부의 정책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SRF의 REC(신재생에너지 인 증서) 비중이 축소되고, 국회에서는 SRF를 신재생 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SRF 매 력도가 확 떨어졌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에는 정부가 앞장 서 SRF관련 시설 건립을 장려했다가, 정부 정책 변화로 SRF와 관련 시설이 설 자리를 위협받는 지경이 됐다는 것이다. 정부 조치로 수입산 목재 펄릿이 재빠르게 고형연 료 시장을 잠식한 것도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 온다. 목재펠릿은 임업 폐기물이나 소나무 벌채목 등의 톱밥을 원기동 모양으로 압축·가공한 연료다.

◇광주 SRF제조시설과 나주SRF 열병합 발전소 = SRF(Solid Refuse Fuel)란 생활 쓰레기 가운데 불에 잘 타는 것들을 모아 잘게 잘라 만든 이른바 ‘쓰레기로 만든 고형 연료’다. 광주 SRF제조시설은 오염물질이 잔뜩 묻어 재활용되기 힘든 페비닐·플 라스틱 등으로 고형연료를 만드는 시설이다. 종량 제봉투에 담겨 배출되는 일반쓰레기는 SRF시설이 아닌 광역매립장으로 간다.

쓰레기로 만들어진 고형연료가 향하는 곳은 나주 등 전국에 있는 SRF발전소다. 광주SRF시설 사업 자인 청정빛고을(주)과 나주열병합발전소 사업자 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맺은 연료 공급 계약에 따 른 것이다.

나주SRF발전소는 광주·나주·순천·목포의 SRF 제조시설에서 만든 고형연료를 공급받아서 태워 만 든 열을 1.6km 떨어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공 급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발전소 시험 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혹을 제 기하면서 정상 가동은 무기한 연기됐다. 나주열병

환경정책 급변 천덕꾸러기 된 SRF

지자체·사업자 물고 물리는 소송전

안전성 검증 주민 불안 잠재워야

합발전소가 2018년 초 정상 가동을 무기한 연기하 자 광주SRF제조시설도 가동을 멈췄고, 광주에서 나오는 쓰레기 가운데 매립장으로 가는 종량제 쓰 레기를 제외한 페비닐·플라스틱 등 ‘재활용 불가 잔 재물’ 처리가 한계 상황으로 접어든 것이다.

◇멈춰선 나주열병합 발전소 싸고 물고 물리는 소송전=나주SRF발전소를 연결고리로 고형연료 처 리 계약을 맺은 여러 자치단체와 사업자가 발전소 가동 중단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물고 물리는 소송 전에 휩싸여 있다. 나주SRF발전소 사업자인 한국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월 “나주시가 SRF발전소 가동 승인(건축물 사용 미승인)을 내주지 않는다” 며 나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법원 에 제기했다. 같은 해 3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발전 소 인허가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나주시와 나주시장 등을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 송을 냈다. 난방공사가 제기한 2개의 소송은 아직까 지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광주SRF시설 사업자인 청정빛고을(주)는 지난 해 5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9월 맺은 계약대로 생산된 고형연료를 가져가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내용이 었다. 광주시도 올 4월 청정빛고을이 난방공사에 낸 소송에 보조자로 참가했다. SRF발전소 가동 중단 으로 광주시가 입은 손해를 일부라도 배상받기 위 한 조치였다. 나주SRF발전소로 가야할 고형연료 6 만t을 안고 있는 장성군 역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전에 가세할 모양새다. 고형연료 보관 과정에서 침출수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방치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광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상 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SRF시설과 발전소 매물 비용만 3700억원, 해 결책은?=전남도가 나주 SRF 발전소 가동 중단 사 태 해결을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꾸리고 최근 까지 8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 주한 외국 대사들 만나 광주세계수영대회 참가 요청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40일 앞으로 다 가온 가운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이용섭 광주시 장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중 국을 찾아 2박 3일 동안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친 데 이어 귀국 즉시 주한 외국 대사들을 잇달아 만나 협 조를 요청하는 강행군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31일 브라질, 스페인, 호주 등 3개 국 대사들을 만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상 황을 설명하고, 대회참가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전 달했다. 또한, 수영대회에 선수·응원단이 최대한 참

가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대사들을 7월12일 선수 관대회 개막식에 공식 초청했다.

이날 주한 브라질 대사관을 찾은 이 시장은 루이 스 엔히키 소브레이라 로페스 대사를 만나 “한국과 브라질이 수교 60주년을 맞는 올해 열리는 광주수 영대회를 많은 브라질 국민들이 관람하기 바란다” 고 요청했다. 이에 루이스 대사는 “브라질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브라질 정부와 수영협회에 긴밀하게 협조 요청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시장은 이어 주한 스페인대사관과 호주대사관

을 찾아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 비야시안 대사와 제 임스 최 대사를 각각 만났다. 한국계 출신인 제임스 최 호주대사는 “대회참가 선수·팀들과 긴밀히 연락 을 취하고 있다”며 “호주 국민들은 물론 한국에 거주 하고 있는 호주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다음 달 3일에는 주한 스웨덴·인도·독 일 대사 등을 잇달아 면담하는 등 수영대회 성공 개 최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선 열병합발전소 전경. 광주·나주·순천·목포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를 태워 혁신도시에 전기와 열을 공급 할 예정이던 발전소는 현재 주민 반발로 정상 가동이 무기한 연기됐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文대통령, 트럼프 앞서 김정은과 만날까

이달 말 G20 릴레이 정상외교

한반도 비핵화 중대국면

북미협상 돌파구 고심 문대통령

원포인트 남북회담 추진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 착의 중대 분수령이 될 6월을 맞았다.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국 정 상들의 연쇄 회담이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북미 협상 교착을 타개할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번 달 하순 일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 했다. 또 한국 정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 무대 를 활용해 한중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한 러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각국 정부와 물밑 조율 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나아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 이며, 시진핑 주석은 이달 5일 러시아를 국빈방문 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러 정상회 담을 하는 등 미·중·일·러 정상들의 회동이 숨 가 썩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이런 릴레이 정상외교 는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올해 상반기 마지막 기회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정상들과 만남에서 한반 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하고, 이를 통 해 북미 협상을 진전시킬 모멘텀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에서는 문 대통 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과감한 대북대 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 한과의 소통을 통해 북측의 정확한 의증을 파악하 고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거리를 좁혀 놓 는다면, 이후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성과를 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9~16일 예정된 핀란 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김 위원장과 ‘원포인트 4차 남북 정상 회담’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얘 기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북한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비핵 화 협상의 급격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분 석도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발사체를 발사했고, 이후에도 대외 선전 매 체 등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비난을 이어 가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북한 소식통을 인 용해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을 물어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와 외무부 실무자들을 처형 했다는 보도도 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대북특사 등 정상회담보다 낮은 단계에서의 남북 간 소통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북미 간 대립이 첨예한 상 황으로, 지금은 일단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하 지 않고,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를 전제로 협상 의 돌파구를 열 계기를 차분히 찾아가야 할 것”이 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566-9988

돈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돈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 옛.맑은광주안과

J16 40 point	8 5 1
J10 20 point	1 6 5 2 4
J8 14 point	6 8 2 4 7 5 8 1
J7 12 point	2 5 1 6 4 9 7 8 3
J6 10 point	1 3 0 7 5 8 4 9 2
J5 8 point	2 4 6 3 7 1 2 8 0
J3 6 point	4 6 2 8 1 0 9 7 3
J2 5 point	0 7 6 2 1 4 3 0 2
J1 4 point	0 5 1 7 9 8 0 0 2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J1+ 3 point	0 0 0 0 0 0 0 0 0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 광주지사

상무대로

화정역 4번 출구 / 농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